‘마을로 가는 봄 축제’ 개막

무주군, 30일~5월 7일까지 진행… 무주읍 앞섬마을 등 20개 마을 참여

무주군 마을로 가는 ‘봄’축제가 시작됐다.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무주에서 놀아요!’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마을로 가는 봄축제는 5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 30일 안성면 통안마을에서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지역공동체활성화협의회(사단법인 마을을 잇는 사람들)가 주관한 개막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사)마을을 잇는 사람들 박희축 이사장을 비롯한 각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봄축제의 성공을 기원했다.

황 군수는 “마을과 군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마을로 가는 축제가 드디어 시작됐다”며 “봄·여름·가을·겨울 축제로 이어지며 따뜻한 공동체를 일구고 부자되는 군민을 실현시켜 나갈 마을로 가는 축제가 반딧불축제와 산골영화제, 농·특산물 대축제를 잇는 우리군 대표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개 마을이 참여하는 무주군 마을로 가는 봄축제에서 ‘복사꽃 피는 무주의 섬마을 체험’으로 손짓하고 있는 무주읍 앞섬마을(상시, 숙박가능)은 복숭아꽃 길을 달리는 자전거트레킹과 복숭아꽃 책갈피 만들기를 준비했으며 꽃밥도 먹을 수 있다.

서면마을(주말)은 ‘우리 마을엔 도깨비가 산다’는 콘셉트로 도깨비불 체험과 도깨비집 찾기 미션 등의 체험을, 먹거리로는 모시국수와 모닥불 바비큐 등을 준비했다.

무풍면 무풍승지마을(상시, 숙박가능)은 ‘와일드푸드 체험’을 선사하기 위해 농장 둘러보기와 사과피자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웰빙음식 시골밥상도 준비한다.

‘웨딩 고사리체험’을 준비한 설천면 호롱불마을(상시, 숙박가능)에서는 웨딩 꽃다발 만들기와 꽃마차 투어를 해볼 수 있으며 고사리 무침과 고사리 버섯전을 맛볼 수 있다.

삼도봉마을(주말, 숙박가능)에서는 ‘산 바구니, 봄 바구니, 나물 바구니’를 주제로 산나물을 뜯으며 둘레길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적상면 괴목마을(상시)에서는 ‘봄 색깔 나들이 가자’라는 테마에 맞게 삼색 칼국수를 맛보며 봄 색깔 손수건과 봄꽃 상모 만들기 등을 해볼 수 있다. ‘대마와 함께 꽃 춤’을 준비한 치목마을(상시, 숙박가능)에서는 대마 밥상을 받으며 야생꽃차 만들기와 삼베짜기 체험이 가능하다. 구덩이 파고 화풀이 등 이색체험을 준비한 초리마을(상시, 숙박가능)에서는 요거트를 직접 만들어 먹는 시간이 마련된다.

‘구불구불 재 넘어 하늘목장’ 내창마을(상시)에서는 한방 꽃차를 음미하며 산양 먹이주기와 편백나무 숲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성도마을(4.15.~)에서는 솔밭 길 체험과 시골밥상을 맛볼 수 있다.

‘춤추는 소금불꽃(낙화놀이)’ 체험을 준비한 안성면 두문마을(상시)에서는 낙화봉만들기를 비롯해 직접 채취한 봄 미나리로 비빔밥을 해먹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명천마을(주말, 숙박가능)에서는 기체조와 딸기화분 만들기를, 진원마을(상시, 숙박가능)에서는 냉·온 국수를 먹으며 청국장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멍 때리기 좋은 마을’ 외당(상시)에서는 빵 도마 만들기와 마을 트레킹을, 죽장마을(상시, 숙박가능)에서는 오분도 주먹밥 만들기와 풀잎 바람개비, 솔방울 가습기 만들기를 해볼 수 있다. 낙화권역(숙박가능)에서는 야생 바비큐를, 통안마을(상시, 숙박가능)에서는 소나무 숲 힐링 탐방, 수락마을(상시, 숙박가능)에서는 표고버섯체험, 신무마을(상시, 숙박가능)에서는 천마캐기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나는 자연이다’라는 테마로 한 부남면 상굴암마을(주말)에서는 가마솥밥을 지어먹으며 벚꽃 길 산책과 비석수제비놀이 등을 해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 귀산촌 정책 간담회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및 귀·산촌 정책 간담회가 30일 무주군 설천면 호롱불마을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산촌생태마을의 우수성을 알리고 귀·산촌 지원과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신원섭 산림청장과 김일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황정수 무주군수를 비롯한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전라북도와 무주군, 임업진흥원 관계자들과 마을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마을가꾸기를 위한 기념식수와 야생화 식재, 마을 정화활동에 함께 했으며 귀산촌 정책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나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생태마을이 주민소득을 키우고 귀산촌 활성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귀산촌 지원과 교육도 귀산촌 희망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황 무주군수는 ‘전북동부권 임산물 물류 터미널 조성(2018~2020, 총 사업비 40억 원)’과 ‘중부권 표고 톱밥배지센터 조성(2017~2018, 총 사업비 68억 원)’ 등 두 가지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40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은 산촌소득증대가 목적으로 군은 ‘전북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호두 등 임산물의 공동수집·출하를 위해, ‘중부권 표고 톱밥배지센터’는 중부권의 규모화 된 톱밥배지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장이 된 호롱불마을(운영위원장 박희축)은 2013년 산촌생태마을 조성이 마무리된 이후 지금까지 한 해 1억 7,000여만 원의 꾸준한 매출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귀산촌 교육을 통해 새롭게 마을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우수마을로 꼽히고 있다.

이곳 외에도 무주군에는 14개 산촌생태마을(1999~)이 현재 조성·운영 중으로 전통된장체험부터 머루와인체험, 숲 체험 등 마을특성에 맞는 체험, 숙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모델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완주군 재정관리과, 친절 교육

완주군 재정관리과는 세정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주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민원서비스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매주 화요일 업무시작 전 강사로 지정된 직원이 재정관리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험담을 토대로 친절교육을 펼치고 있다.

또한 1일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곳곳에 화분 배치 및 집기정리 등 주변을 정리정돈함으로써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재정관리과는 오는 4월 ‘호감가는 이미지 만들기’라는 주제로 전문강사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반딧불 농 · 특산물 주말장터 운영

무주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10월까지 주말(토·일요일)마다 무주IC 만남의 광장과 반디랜드에서 주말장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연간 600여 농가가 참여해 직접 재배·가공한 천마와 더덕, 도라지, 사과, 옥수수, 고로쇠, 꿀 등 15개 품목의 반딧불 농·특산물을 판매한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6.24.~30.)를 비롯한 여름 휴가철(8.1.~15.)과 무주반딧불축제(8.26.~9.3.), 추석(9.25.~29.), 단풍철(10.16.~20.), 농·특산물대축제(10.27.~29.) 기간에는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개별 · 공동주택가격 열람

진안군은 2017. 1. 1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안)을 다음달 4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진안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진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개별통지되며, 최종 가격은 4월 28일 결정 공시된다.

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이외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료원,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나선다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지정 현판식 가져

진안군의료원은 30일 이항로 군수, 조백환 원장, 조춘태 전북동부보훈지정장, 진안군보훈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지정 현판식을 의료원에서 가졌다.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의료대상자가 서울, 광주 등 5개 광역시에 소재하는 보훈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주거지 인근의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비진료대상자는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등이다.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게 된다.

조백환 원장은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만큼 관내 국가보훈대상 환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보훈위탁병원 지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보훈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항로 군수는 축사에서 “이번 보훈위탁병원 지정을 계기로 보훈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혜 확대와 주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며 “진안군과 진안군 의료원은 환자중심의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근로 · 자녀장려금 읍 · 면 현지신청창구 운영

장수군은 2017년 5월 1일~3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읍·면 현지신청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한다.

이에 장수군은 원거리 거주 고령자(60세 이상) 등 취약계층의 장려금 신청 누락 방지 및 편의 제공을 위해 관할 세무서와 업무협조를 기반으로 5월 읍·면 현지신청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 승마시설 개장시간 연장 오후 8시까지

장수군 장수승마체험장(장수읍 노하리) 및 장수승마장(천천면 월곡리)이 개장시간을 연장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 투어패스 관광객 및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이 증가하고 승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간 운영시간을 종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

이에 군은 일반 직장인들의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마필상태를 점검하는 등 체험객을 맞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주말과 휴가철 폭증하는 방문객 수요에 대비해 마필관리 인력을 채용하는 등 체험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 산불예방 홍보

장수군은 30일 계남면 신전리 산 89-1번지 일원에서 ‘제72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최용득 군수와 공무원 및 기관단체 등 300여명은 임야 1.5ha에 편백나무 4500본을 식재했다.

이 행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도시 조성에 동참했다.

참석자들게 밤나무, 복숭아, 매실나무, 자두나무 등 유실수 600본을 무료로 나눠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앞두고 각종 식목행사와 성묘객, 상춘객 등 입산 인구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 행정력과 산불전문 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을 총동원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